

고려불교 매장문화 근거자료 최초발견

순창 농소고분서 산스크리트어 쓰인 목관 발굴

고려시대 고분에서 불교식 문자가 쓰여 있는 관이 처음으로 발굴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특히 고려시대 불교식 매장 문화를 연구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12월 3일 순창 적성면 운림리 산 12-2번지에 있는 농소고분 발굴 현장서 조사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유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고분에서 발견된 목관의 널에 쓰여진 산스크리트어다. 고분 널에는 산스크리트어가 금가루로 새겨져 있었다. 우리나라 고분에서 산스크리트어가 쓰여진 유물이 발굴된 것은 처음으로 고려시대 불교식 매장문화에 대한 연구자료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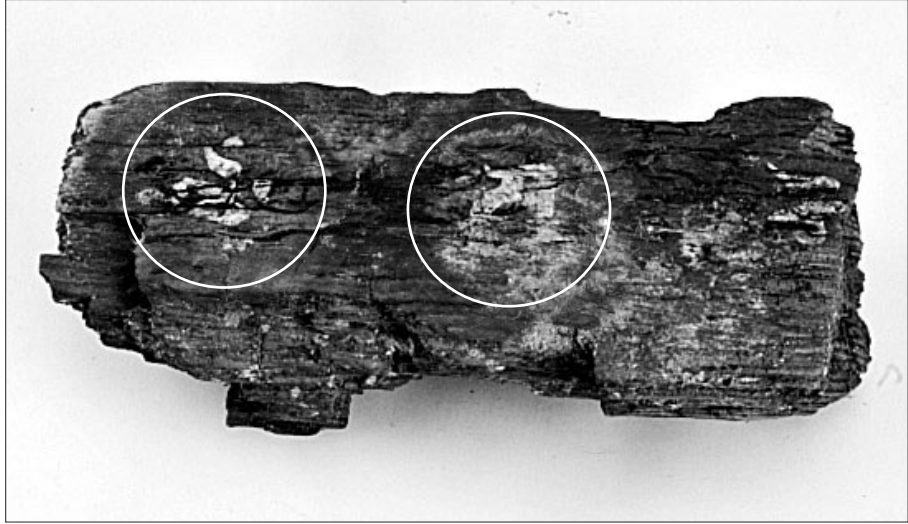
이상준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관 외부에 찍여진 것으로 앞으로 불교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을 짜 넣은 덧널무덤 형식이다. 봉토는 당초 길이 580cm, 너비 404cm의 장방형으로 큰 규모로 추정되나 현재는 모두 깎여 가장자리에 병풍석(護石)만 남아 있다. 병풍석 내에는 3단으로 파여 있으며, 전체 깊이는 300cm에 이른다.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은 청동합(靑銅合)을 짜 넣은 덧널무덤 형식이다.

고분에 범어 유물 발굴 최초 무덤 규모로 고려 지도층 추정

盒, 음식을 담은 놋그릇 중 하나, 그리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고 뚜껑이 있으며, 불교에서는 주로 공양품을 담은 용도로 쓰임, 청동반(靑銅盤, 얇은 세숫대야 모양의 그릇), 청동수저 등이며, 토광의 세 벽면을 파내어 만든 벽감(壁龕, 장식을 목적으로 두꺼운 벽면을 파서 움푹한 공간) 속에서



농소고분 현장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 목관 널판지. 산스크리트어가 고분서 발견된 것은 최초다.

출토됐다. 이와 함께 동쪽 벽감에서 출토된 청동반에서는 머리카락을 문친 다발이 가지런히 담겨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밀봉된 채 발굴된 청동합을 열고, 목관도 해체해 추가 유물을 확보할 계획이며, 무덤 주인의 나이와 성별 등에 대

한 추가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전용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책임조사원은 “무덤의 규모, 출토된 유물들의 양상, 목관과 목곽의 구조물로 볼 때는 고려시대 때 이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층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모님 나라 말 배울 수 있어서 행복”

광주외국인복지센터, 11월 29일 몽골 이중언어교실 수료식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부설 보드미학교(교장 보혜, 비전사주지)는 11월 29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중언어교실이란 다문화가정 이민자 2세에게 부모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언어 교육이 진행된다. 보드미학교는 지난 3월 개강 후 총 8명의 몽골이민자 자녀들이 이날 보드미학교 과정을 수료했다.

교장 보혜 스님은 이날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서로 다른 국적을 지닌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이민 온 국가에 대해 아는에서 시작한다”며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보혜 스님은 “1년 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몽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몽골 이중언어과정은 3명의 몽골이주인 어머니들이 선생님이 되었다.



이들은 한국어로 결혼이민 이후 귀화해 몽골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상담 및 통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 보드미학교 몽골 이중언어 선생님과 자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보혜 스님과 몽골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이 전달됐다.

보드미학교 관계자는 “이날 수료식을 마친 아이들은 학교보다도 토요일이 가장 신나는 요일이었다”며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주었다”고 밝혔다.

보드미학교는 2015년 3월 2일 개강할 예정이다. 특히 새 학기에는 몽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별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겨울 앞둔 따뜻한 사찰음식 잔치 ‘눈길’

백양사 천진암, 11월 29일 사찰음식 강좌 및 작은음악회



늦가을 단풍이 지는 작은 암자에서 전통사찰음식 잔치가 열렸다.

장성 백양사 천진암(주지 정관)은 11월 29일 경내에서 사찰음식 잔치와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찰음식잔치에서는 ‘樂樂작은음악회’가 함께 펼쳐져 참가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본행사에서는 부처님게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에 이어 사찰음식전문가인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이해와 특징’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관 스님을 만든 40여 가지의 사찰음식과 발우공양 체험과 연잎밥 만들기, 배추전 부치기 등 체험행사와 함께 소원을 달기, 염주만들기 등의 다양한 사찰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대해 “사찰음식의 특징은 독특한 조리법이 사찰마다 다르다는 것”이라며 “산야초를 음식으로 먹고 육식과 오신채 및 인공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 만드는 과정을 오로지 또 다른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긴다”고 사찰음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무엇을 먹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중요한 관심을 갖고 음식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그 특징을 다섯가지로 정의했다. 스님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채소 중에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찰음식은 약리작용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며, 계절에 따른 음식이 발달해 있다”고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로 아끼는 자비섭수의 마음으로”

조계종 제 19교구신도회 11월 27일 화엄사서 창립



조계종 제19교구 신도회가 창립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지난 11월 27일 대웅전에서 ‘제19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교구신도회장에 하주현(법명 김상화), 수석부회장에 한산사 문주자(법명 정법행), 부회장에 정혜사 영정희(법명 대각화), 도림사 김정애(법명 상명주), 총무 김은희(법명 모니화)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화엄사 본말사 주지 스님과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중앙신도회 관계자, 본말사 신도회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교구신도회 창립을 축하했다.

하주현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연기 스님께서 가람을 창건한 이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원력으로 일구어진 화엄사의 역사만큼이나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본말사 신도회간의 교류와 협

력을 일구어내야 하는 교구신도회장직을 완원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찰 신도회와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임명자 수여에 앞서 격려사를 통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의 큰 원칙을 견지하면서 서로 아끼는 자비섭수의 마음으로 교구신도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교구 신도회는 지난 5월 본말사 신도회간의 교류를 위해 창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19교구 담당인 여수, 순천, 구례, 곡성 지역의 각 말사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포교원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신도회 자비나눔 쌀 1050kg 전달

고창 선운사 신도회(회장 정만수)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나눔의 쌀을 기증했다.

선운사 총신도회는 12월 3일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에 쌀 50포(20kg)를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에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 쌀 전달기금은 선운사 신도회가 매 주 회원들이 선운사에 나눔장터를 개설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은 이번에 기부받은 쌀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원 스님은 “선운사 신도회에서 모든



수익금을 지역 소외 계층에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후원이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주 종교계 “신경기변전소 건설 절대 불가”

한전의 송·변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여주 신목사를 비롯한 여주 범종교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3일 여주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전소 건립 백지화투쟁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여주 신목사를 비롯해 여주지역 4개 성당,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원불교(여주교당), 대한성공회(여주교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여주시산북면학부모회 등 여주지역 20여개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한전은 허울뿐인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765kV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민들의 없이 추진되는 변전



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신경기송변전소 건립 후 보지로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곤지암읍, 양평군 강하면 등 도내 5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깨달음 고통 질병 불행 업장소멸 가슴에서 답을 찾다

원인은 고통제(과거생과 현재살의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정보를 업식, 고정관념, 예고, 카르마) 몸을 지배하는 무의식을 통해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질병, 고통, 불운이 현재의 인생입니다.

■ 수행방법 : 몸에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근육,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 무의식에 자리잡은 정보에너지를 진동, 공명, 분해 상쇄의 원리로 몸밖으로 토납하는 수행법.

- 1 깨달음을 찾는 일반인, 불자, 스님 모든 분
-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 3 집안에 우환과 고통으로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 4 자신이 삶이 너무나 안풀리는분(부부, 직업, 사업, 관계, 자식, 돈문제)
- 5 영적인 빙의나 정신적인 상처나 트라우마, 원인을 알 수없는 무수질한
- 6 도, 철학, 신비세계, 종교관심이 없고, 늘 마음이 고독한 분
- 7 모든 난치질환,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원인불명의 모든 질환
- 8 기도나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거나 인생의 고통이 안 풀리는 분
- 9 기공 능력 향상과 영가천도 능력 개발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기침, 가래, 콧물, 눈물, 진물, 방귀, 트림, 가 스,담음)으로 빠져나옴.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영혼이 깨어남 - 환골탈퇴의 과정 3년정도 수행시 완전한 가슴의 열림을 통한 부처님의 자비가 가슴에서 드러남.

◆ 상담시간 : 월요일 ~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방문 상담 비용 : 5만원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 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자각선원

카페-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010-9242-5259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지구촌 최대이슈 이생애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성불도통,수명연장,천하대도 루진통대법회

부처님께서도 루진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으며,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육통자제인 루진통은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루진통 철야 정진이 갑오년 양력 2014년 12월 14일 ~ 15일 무박 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인제 도인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누구도 주머니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빙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현대 한방 양방 각종 귀신 잡신에 빙의된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응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으로 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일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도법을 얻는 무박 2일 루진통 법도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불보살로 지상신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는 단한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를 통하여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병겁에 전인류를 살리는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소서 ...?



거부장자로 시는 불어구명자: 태일 02)821-6622/010-3239-3110

- 입 제 일 : 2014년 12월 14일 (음력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4년 12월 15일 (음력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9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농협 029-01-167866 광한역)
-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복장 및 세면도구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약사 미륵 달마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종사